

도내 하루 20명꼴 음주운전 적발

전북경찰, 현재까지 3134명... 면허 취소 1593명

올해 5월까지 전북지역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3000명 이상이며 이 중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3134명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1669명이고 0.1%이상 측정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1593명이다.

이외 나머지 47명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20명 이상 전북지역 운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 25분경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피

해자 B(50·여)씨가 타고 가던 장애 인전동차를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A(27)씨가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운전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외상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또 지난달 29일 오전 6시 10분경 익산시의 영등동 한 도로에서 노모(28)씨가 몰던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 일대가 정전됐다.

사고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3%였으며 노씨 본인은 사고로 경상을 입었을 뿐이지만 사고지역 인근 주민들은 2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이 강화돼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진수 기자

지인 지갑 훔친 50대 검거

지인과 함께 응급실에 방문해 지인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2일 병원 응급실에서 지인의 지갑을 뒤져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5일 밤 11시10분경 정읍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지인 B씨의 지갑에서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지인 B씨와 함께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B씨가 잠시 화장실을 틀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점퍼 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씨는 B씨가 심근경색 증세로 쓰러지자 119에 신고해 함께 응급실에 방문, 의사가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지갑 내부를 살펴다 다액의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평소 정씨에게 술 한 잔 사달라고 했는데 정씨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더니 지갑에 돈이 많은 것을 보고 쾌심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안진수 기자

가방 훔친 10대 2명 붙잡아

남원경찰서는 2일 마트 앞 거리를 지나는 청소년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김모(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15일 오전 3시21분경 남원시 도동동 한 마트 앞 노상에서 C(17)군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C군이 물을 사기 위해 무거운 가방을 잠시 벤치위에 놓아둔 틈을 타 가방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안진수 기자



저출산 극복 출산정책 협업 토론회 2일 도청 접견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교육청, 고용노동청,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최근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 협업 토론회를 가졌다.

전주시, 지렁이 생태학습장 4곳 새로 개소

도시혁신센터·팔복남양아파트·반촌연립·풍남맨션에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시민행동 참여를 위한 지렁이생태학습장을 늘려나가고 있다.

시민행동21은 1일과 2일 이틀간 서노송동 전주 도시혁신센터와 팔복남양아파트, 반촌연립, 풍남맨션에서 2016년 지렁이 생태학습장 '참 좋다! 지렁이' 개소식을 가졌다.

이로써 전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지렁이생태학습장은 총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주시에서 운영중인 지렁이생태학습장 중 지난 2014년 개소한 송천동 서호아파트의 지렁이생태학습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근 주민과 유치원 학생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곳은, 다른 지역 주민들도 견학을 오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는 전주시니어클럽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전

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삼천동 흥진1차아파트와 중화산동 거성화산아파트, 효자동 한강아파트에서 운영중인 지렁이생태학습장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렁이생태학습장이 이처럼 주민들의 참여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올해 4곳의 지렁이생태학습장 운영을 지원했다.

김종만 시민행동21 대표는 "주민, 행정,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지렁이생태학습장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홍보를 넘어서 새로운 공동주택문화를 만들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환경 문제뿐 아

니라 지역문제로 연결되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행동21은 지난 2000년 설립된 비영리기구(NGO)로서 '나의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기초아래 시민들의 여러 실천사업을 장려하며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재 기자

학원 상담 받던 중 지갑 훔쳐

익산경찰서는 2일 학원에서 상담을 받던 중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서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15분경 익산시 모현동 한 학원에서 A씨의 가방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반지갑 및 지갑 속에 든 현금 등 1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수 기자

전주 미래유산 프로젝트 구체화 속도

시, 전문가 등 참석 포럼 개최

전주시가 도시의 구성원이자 기억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전주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2일 전주시역사문화센터 1층 다올마당(강당)에서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행정 T/F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미래유산 제5차 포럼'을 개최했다.

'전주 미래유산 프로젝트'는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억의 장소와 오래됐으며 의미 있고 남아있으며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래유산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미래유산, 마을과 공동체'를 주제로 열린 이번 5차 포럼에서는 정석 서울사업대 교수와 김창환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국장 등이 각각 발표했다.

정석 교수는 '오래된 것이 도시의 힘'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서울의

마을공동체 추진 사례와 중국 북경의 역사유산 보전과 활용 사례, 일본 동경의 오래된 공장마을 살리기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특히 "서울의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과 서울유민타운 사업 등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민관이 함께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제는 무조건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옛 동네와 건물을 보존하고 지혜롭게 고쳐 마을가치를 새롭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주시 온두레공동체와 미래유산'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창환 국장은 전주시의 온두레공동체 사업과 마을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 미래유산 포럼을 통해 미래유산의 개념과 범위, 가치 등을 정립하고 담론 및 공감대를 형성, 전주시 미래유산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2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교교 앞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2년부터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는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8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자신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시장 이춘석의원 사무장 증인 요청

최초 제보자로 재판 핵심인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한수 전 전북 익산시장과 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의 핵심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의 전 법무법인 사무장이었던 A씨가 떠오르고 있다.

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한수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이춘석 의원의 법무법인 사무장이었던 A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A씨는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은 또 기자들이 돈을 돌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B씨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경찰은 4명의 증인 중 베트남에 거

주하는 증인 2명의 일정을 조율해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전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이 전 시장의 선거구와 기자들의 연고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자 중 1명의 본적이 익산갑 지역구며 또 다른 기자의 사무실이 같은 지역구에 위치해 있고 그 직원을 역시 선거구민이라며 연관성을 피력했다.

이 전 시장과 기자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한수 전 시장은 지난 4·13 총선 전인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 간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 매수 및 기부행위)로 구속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